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11:00 - 12:00

□ 장 소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3층 달콤한방

□ 참석자 : 10명

○ 참 석 : 9명

김봉구 위원, 이현덕 위원, 임규옥 위원, 정병오 위원, 최선용 위원, 홍인실 위원, 현은주 위원, 김영미 위원(관장), 이영란 위원

○ 불 참 석 : 1명

박유정 위원

○ 직 원 : 1명

김영례 부장

□ 개 회 선 언

- 11시 00분 운영위원회 총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시작하다. 정병오위원장 이 개회를 선언한 후 위원들 근황을 간단히 공유하고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 박유정 위원은 구의회 예결위로 인해 참석이 불가능함을 공유하다.

□ 보 고 사 항

- 전차 회의록보고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채택하다.
- 24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 김영례부장: 24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하다.
- 정병오위원장: 느린학습아동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김영례부장: 현재 6명 참여하고 있다. 교육지도사가 주 2회씩 개별 수업을 진행한다.

- 현은주위원: 느린학습아동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궁금하다.
- 김영례부장: 사업시작을 할 때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였다.
- 김영미관장: 연초에 느린학습아동을 둔 부모들이 기관에 찾아왔고 관심을 요청하였다. 아이들의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부모님들이 참 힘들다고 표현하셨다.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정병오위원: 대학에도 학습을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 청년세대에게도 느린학습자가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가 하는 수업이 정책쪽인데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험을 보면 40명중에 5명 정도는 3번만 쓰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 10분의 1정도는 학교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한다. 우리 사회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걱정이다. 중국초교장 선생님도 엄청 느끼시는 현안이 아닐까 한다.
- 현은주위원: 그렇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가지로 지원하고 있다.
- 정병오위원장: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이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좋겠다.

-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김영례부장: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다.
- 김영미관장: 25년 복지관 예산을 계획은 했지만, 시보조금이 1, 2월이 되어야 확정되어 이후 변동이 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최선용위원: 노인들 식사비 500원 지원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보조금 지원받는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물가가 많이 인상된 상황이라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케어센터 식단가도 이에 대한 상황을 반영하여 500원 인상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정병오위원장: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 요율 변경이 확정된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항이어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앞서가는 것으로 느껴진다.
- 이영란위원: 아직 확정은 아닌데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반영하였다.
- 정병오위원장: 학령후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현은주위원: 학교에서는 고학년이라고 표현한다.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이라고 아이들의 학년을 구분한다.
- 김영미관장: 저희도 논문 등 연구자료를 찾아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영례부장: 프로포절에서는 아무래도 임팩트가 있어야 심사위원의 관심을 받기에 의도적으로 '학령후기'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 정병오위원장: 건강리더라는 표현이 있던데 참여의 조건이 없는가?

- 김영미관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 지역내 4~60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 현은주위원: 중장년고립가구는 어떻게 발굴하는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고시원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다. 원장님들 모여서 간담회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코로나때 서울시에서 돈 받아서 하는 프로젝트에 면목3.8동에서 먼저 하면서 그 뒤로 고시원에 물품지원, 김장 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은 복지관에 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계속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년은 주거환경봉사단도 하고 있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은주위원: 고립청년은 어떻게 발굴하는지도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컨트롤하고 있고, 서울시청년기지개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고, 저희도 홍보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다.
- 현은주위원: 참여를 본인이 희망하는지 궁금하다. 본인이 신청하면 고립이 아닌 것인지 등 상태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본인의 참여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말하는 히키코모리 수준까지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저희는 청년사업하는 담당자가 꽤 오래되고 잘 하고 있다. 최근에 서울시 청년미래관이 기관방문을 해서 복지에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수고를 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가졌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예산도 추가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담당을 하는 사람이 사업의 의미성을 얼마나 느끼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 김영례부장: 히키코모리 발굴은 정말 어렵다. 고립청년사업 참여자 모집할 때, 한번 홍보한다고 바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사례관리를 지속하면서 가족들과 연결고리도 만들고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 정병오위원장: 한국사회에서 휴먼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그 의미를 가질 지에 대해 여러 고민이 되는 것 같다.
- 최선용위원: 요즘 몽골, 동남아 사람들이 많던데 이와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다.
- 김영미관장: 저희 기관에서는 다문화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연초에 학교, 카카오톡채널,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동 개별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가족단체활동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중이다.
- 정병오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며 시대적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다.
- 정병오위원장: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이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좋겠다.

- 운영규정 변경(안)

- 김영례부장: 운영규정 변경(안)을 보고하다.
- 정병오위원장: 1박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데이케어센터처럼 복지관도 운영규정을 디테일하게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김영례부장: 1박의 경우는 출장을 가서 자는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대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는 평가나 지도점검 등에 디테일한 운영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관의 경우에는 노동법이나 관련 지침에 대해 자세히 집어 넣지 않고 있다.
- 정병오위원장: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이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좋겠다.

- 운영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 김영미관장: 운영위원 임기가 3년이고 올해가 그 마무리되는 해이다. 내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정병오교수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재위촉을 요청드린다.
- 정병오위원장: 중랑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있고, 프로그램 현장과 딱 부합되는 전공이라기보다는 거시적, 국가적 단위의 정책과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어서 현장의 실천을 배운다는 입장으로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작은 지역사회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책임있게 하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항상 반갑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최선용위원: 면목동에 정말 오래 살고, 부동산을 한지도 20년이 넘었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말 최전선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다. 사랑의샘터 이사로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복지관 운영위원도 3년으로 족한 것 같다. 교수님 따라서 저도 올해까지 운영위원 참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 김영미관장: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정병오위원장님 감사드리고, 항상 복지관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최선용위원님께도 감사드린다. 두 분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운영위원 재위촉에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 감사 드린다.

정병오위원장이 안건 심의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운영위원회를 마친다. 이상으로 의안 논의를 완료하고 12시 폐회를 선언하다.

<관련 사진>



운영위원회 진행